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이번엔 직접선거로 뽑나

일부회원사 직선제 추진위 구성

간선제로 뽑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전남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소속 일부 회원사들은 오는 6월 25일 김규룡 전남도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도회장 직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 회장을 직선제로 뽑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행 전남도회장(임기 3년) 선출 방식은 회원사들의 의사·의결권을 위임받은 대표회원(115명)들을 구성해 이들이 선임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1989년 33개에 불과하던 회원사가 10년만에 417개사로 급증하면서 총회의 대표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힘들어지는데 따라 지난 1999년 도입된 것으로, 당시 회원사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결정됐다.

직선제 추진위 측은 지난 24일 직선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취지문을 발송하고 590여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직·간선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7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안건을 의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표회원제는 효율적 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당시 도회장과 일부 추종세력에 의해 급조됐다"며 "회원사의 권익과 이익보다는 회장을 비롯한 소수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국 시·도회 가운데 회원수가 적은 광주·제주만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회원사가 590개가 넘는 상황에서 직선제로 회장을 뽑자는 것은 사실상 위임장만으로 회장을 뽑자는 의도"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김규룡 전남도회장은 이와관련, "간선제는 회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생기는 협회 운영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결정했던 사안"이라며 "총회에 안건으로 제출되면 회원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기 3년의 도회장은 115명의 대표회원에 의해 선출되는데, 대표회원 115명 중 51명(회장단·대의원·간사·윤리위원·감사)은 대표회원이 모인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64명은 590여명의 일반회원이 각 지역에서 선거로 뽑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LPG 탱크 해외판로 개척 조명 신제품 개발에 앞장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자랑스런 중기인상'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26일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김상기 (주)링크라인아이엔씨 대표, 김영신 (주) 캔택 대표, 임충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캔택' 김영신 대표

차량용 LPG 탱크 및 LPG 저장탱크 생산업체인 (주)캔택의 성공비결은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다.

이 업체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LPG 탱크 제조 및 산업기계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2008년 부설연구소를 개설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인증시스템인 ISO 1004, ISO9001을 획득했고, 2008년 10월에는 TS16949 의 품질시스템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투자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1.4톤 이하 트럭과 승합차의 경유 자동차를 LPG로 개조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LPG 탱크 어셈블리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

올해 약 4천800대를 개조할 예정이고 현재 수도권 위주에서 2012년까지 지방으로 영역을 넓혀 점유율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캔택은 또 2011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약 7천만개의 LPG 탱크를 보급하기로 하는 등 우수한 품질을 앞세워 해외 판로개척에 나서고 있다.

김영신(42) 대표는 "기술투자는 기업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4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68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링크라인' 김상기대표

"신조명개발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지역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과 산학연 협업을 통해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전념하겠습니다."

수동광통신부품생산 업체인 (주)링크라인아이엔씨 김상기(44) 대표는 "특히 OLED 분야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지역거점산업 발전과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발전전략에도 부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주)링크라인아이엔씨는 광점프코드, 광스플리터 및 광감쇄기 등을 생산해 2007년 벤처기업및 이노비즈 기업 선정, 2008년 특허스타기업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 대한민국 창업대전 우수중소기업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다.

설립 후 2007년까지 연평균 두배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을 이뤘으며 광통신 부품과 장비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4건의 특허와 5건의 실용신안을 출원해 기술혁신형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했다.

직원 47명, 매출은 2007년 30여억원, 2008년 450여억원이며 올해는 6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시멘트 값 인상 거부땐 공급중단

쌍용양회 등 레미콘사에 통보

시멘트 가격 인상을 추진중인 시멘트 업계가 '공급 차질' 을 경고 하고 나섰다.

26일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인상된 시멘트 단가를 적용해주지 않을 경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레미콘사 등 수요 업체들에게 통보했다.

시멘트 업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종전 t당 5만9천원에서 7만4천~7만4천500원으로 25~26%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가격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멘트 업체들은 이에 따라 협상에 응하지 않은 레미콘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최악의 경영환경 속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달 말까지 인상된 가격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멘트 수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부터 환율이 크게 올라 시멘트 생산의 주원료인 수입 유연탄 결제대금이 늘어난데다 누적 경영적자가 심각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학생 다단계 피해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새 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가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을 내세우며 가입을 유도할 때는 관할 시·도나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면 탈퇴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휴대전화 등으로 아는 사람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100,000,000장

2002년말 수준 육박 카드대란 재연 우려

지난해 신용카드 발급 장수가 1억 장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08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9천624만 장으로 전년 말 8천877만 장보다 8.4% 증가했다.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2002년 말 1억488만 장에서 카드 사태가 일어난 2003년에는 9천392만 장, 2004년에는 8천600만 장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 8천647만, 2006년 9천247만 장으로 증가했다. 2007년에는 LG카드와 신한카드의 통합 등으로 신용카드가 일부 정리돼 8천877만 장으로 줄었다.

지난해 카드 발급 장수가 다시 급증한 것은 은행과 카드사들이 회원 확보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회사는 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규 발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기별 카드 발급 증가 수는 1분기 205만 장, 2분기 266만 장, 3분기 403만 장이 늘었으나 4분기에는 128만 장이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카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1천342만 건, 1조3천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2.3%, 금액은 14.1% 증가했다. /연합뉴스